

동형 모의고사 03회

국 어

담당교수 : 오 대 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공무원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OMR카드에 성명, 직렬코드, 응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에 표기한 답을 수정할 때는 수정테이프사용은 가능하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을 무효로 처리함.

문 1. 다음 중 문장 부호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침표(.)를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낱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 ② 쉼표(,)를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 ③ 쌍점(:)을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 ④ 대괄호([])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문 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정말 옷이 잘 맞는 **듯도** 하다.
- ② 사과, 배, 딸기 **들을** 가지고 왔다.
- ③ 청군 **대** 백군으로 나누어 싸웠다.
- ④ 이사장 **및** 이사들도 함께 입장했다.

문 3. 다음 <보기> 가운데 우리말의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① 명사는 그대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
- ② 용언에서 접미사 ‘-하다’를 생략해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
- ③ 동사나 형용사는 서술어가 될 수 있다.
- ④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라는 문장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이다.

- ① ㉠, ㉡, ㉢, ㉣
- ② ㉠, ㉡, ㉢
- ③ ㉡, ㉢
- ④ ㉡, ㉣

문 4.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①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②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③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④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⑤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① 군+이 → [구지]
- ② 숨+이불 → [숨:니불]
- ③ 늪+름 → [늪늪]
- ④ 코+날 → [콘날]

문 5. 다음 중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서릿발 - 뿔옷
- ② 햅쌀 - 땀나물
- ③ 면발 - 눈발
- ④ 놀랍다 - 파랑

문 6. 다음 중 <보기>에서 보이는 오류의 유형과 같은 오류가 있는 것은?

<보기>

“오늘 페스트가 우리에게 닥쳐온 것은 반성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 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가차 없는 제앙은 질과 낱알을 가리기 위해서 인류라는 밀을 타작할 것입니다. 낱알보다는 쟁이 더 많을 것이며, 선민들보다는 버림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하느님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성스러운 자비 위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써 충분했고 모든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은 틀림 없이 회개를 하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는 가장 쉬운 길은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밖의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 연민의 얼굴을 보여 주시던 하느님께서도, 기다림에 지치고 실망하시어, 마침내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광명을 잃고 우리는 바야흐로 오랫동안 페스트의 암흑 속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 카뮈, <페스트> 중에서

신부는 하느님이 인간을 저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이 페스트의 암흑에 빠졌다고 했다. 하느님이 베푸는 자비로 인간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악과 타협하여 하느님은 분노하셨고 심판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의 말대로 대중 집회를 연다. 하지만 페스트는 마을 전체를 쓸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페스트는 하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 ① 지난주엔 로또를 목요일에 샀더니 당첨이 됐더라. 이번 주에도 로또를 목요일에 사면 꼭 당첨이 되겠지.
- ② 요즘 세상은 스피드가 생명이다. 운송 관련 업종도 신속함을 중시하여 경쟁력을 키우듯이, 영화도 빨리 찍을수록 영화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 ③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벌을 받으면 꼴을 얻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즉, 죄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다.
- ④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해. 그런데 요즘 세상에 뇌물 주는 것을 물리치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어? 그 친구 정신병원에 보내야겠어.

문 7. 밑줄 그은 (A)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어머니의 까실한 손이 똑 알맞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정성껏 애무하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나의 미래에의 꿈을 마음껏 누렸다.

“가엾은 나의 엄마. 엄마가 그런 걸 보셨다니.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줄이야. 그렇지만 엄마,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엄마의 딸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오빠들 못까지 효도를 하고 말고요. 가엾은 나의 엄마,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 손 사이에 받들고 기도 드리듯이 경건하게 어머니의 깨유를 빌었다.

어머니가 별안간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엔 눈이 부신 듯이 가늘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열리며 내 눈과 마주쳤다.

“엄마, 나예요, 경아.”

나는 벽찬 탄성을 질렀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의 눈에 부연안개가 걷히고 어떤 감정이 담겼다. 나는 내 시선을 조금이라도 어머니로부터 비끼면 모처럼 돌아온 어머니의 영혼이 다시 훌쩍 떠나버릴 것 같아 열심히 어머니의 눈에 눈을 맞추었다.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게슴츠레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을 슬그머니 빼내고 부시시 돌아눕더니 휴하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

(A)[나는 비실비실 일어섰다. 간신히 안방 미닫이를 열고 대청으로 나왔다. 시야가 부엌에 흐려 보였다. 나는 그 부엌 것을 헤치려고 자꾸만 눈을 꿈벅이며 복창문을 열었다. 우수수하고 스산한 바람이 치마폭으로 펄펄 안겨왔다. 나는 맥없이 몸을 떨었다. 바람이 다시 뒷마당을 골고루 휘쓸었다. 쇠아 하고 정원수들이 상쾌하고도 출렁추운 소리를 냈다. 나는 비로소 자지러지게 노오란 은행나무를 보았다. 화려한 광경이었다.]

그는 얼마나 풍부한 의상을 걸쳤기에 어떻게 노란 빛들을 마구 쏟아놓고도 이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꽃보다도 훨씬 찬란했다.]

- 박완서, 「나목」

- ① 분위기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을 통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문 8. 다음은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제 심각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 타깃은 먼저 소득 이전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다. 선진국 정부들은 소위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정보공유 노력이 활발하며 주요 20개국(G20)도 최근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보고서를 승인하여 이를 지지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각국에서 재정지출을 위한 세수가 필요하고 부의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깊다. 다국적 기업과 부자들의 엄청난 로비에 맞서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은 어떨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이 조세회피처에 숨긴 자금이 세계 3위라고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또한 한국 대기업이 케이맨 군도 등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2007년 이후 8년 동안 4324억 달러에 이르는데,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2740억 달러에 불과하여 탈세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에 195명의 한국인이 포함되었다고 보도된다. 그럼에도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모자라는 현실이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국회에서는 해외계좌의 신고의무 금액을 낮추는 등 여러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해외로 도망가는 세금도둑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정치를 바꾸고 정부의 등을 떠미는 시민들의 압력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힘이다.

- ① 조세회피처에 많은 돈을 숨기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개탄스럽다.
- ② 국세청이 탈세를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③ 해외계좌의 신고의무 금액을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 ④ 해외로 도망가는 세금도둑을 잡기 위해 정치 혁신과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 9. 다음의 밑줄 친 ㉠, ㉡을 현대어로 옳게 바꾼 것은?

人間(인간)을 썬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빈틈도 허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좁고 고기란 언제 닳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뉘 곳츠란 뉘 쓸려노. ㉠아침이 낮브거나 나조희라 슬흘소냐. 오놀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하라. 이 뉘희 안자 보고 더 뉘희 거러보니, 煩勞(번로)흔 ㅁ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쉼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히려야. 다만 흔 靑藜杖(청려장)이 다 드드여 가노미라.

술이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너며 득이며 희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올프락 푼함하락 ㉡노해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도 흥가하다. 羲皇(희황)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선)이 엇더던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 송순의 「면양정가」에서 -

- ① ㉠ 아침나절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싫을쏘냐?
㉡ 마음 놓고 노니
- ② ㉠ 아침나절 시간이 부족한데 낮이라고 싫을쏘냐?
㉡ 마음 놓고 노니
- ③ ㉠ 아침나절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싫을쏘냐?
㉡ 노래하며 노니
- ④ ㉠ 아침나절 시간이 부족한데 낮이라고 싫을쏘냐?
㉡ 노래하며 노니

문10. 다음에 제시된 단위어와 사물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땀 : 바느질에서 바늘로 한 번 뜬 눈.
- ② 연 : 종이 전지 500장.
- ③ 필 : 30자 정도의 웃감.
- ④ 제 : 한방 약 10첩.

문11. 다음 글에서 말하는 ‘이 작품’은?

이 작품은 그의 첫 시집 간행 후, 광복 이전까지의 중간기에 발표된 것이다. 이 기간에 발표된 일련의 작품들은 초기의 섬세한 감각과 짜내는 듯한 애조(哀調)에서 일탈하여 식민치하의 상황의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초기 시에서 보인 ‘내 마음’의 세계가 아닌, 사회현실로 눈을 돌려 자아를 확대하고 ‘삶’ 자체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다. 화자를 둘러싸고 덩비는 것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고해져야 했던 일제 말기의 민족적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 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②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③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 나타(懶惰)와 안경을 뒤집어 놓은 듯이 / 높이도 폭도 없이 / 떨어진다.
- ④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
을

문12. <보기>는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일부이다. <보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
-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

- ① 공무원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다.
- ②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 ③ 그 복지 시설은 지금 기간에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다.
- ④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문13. 다음 글의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녀들이 고무 잠수복을 받아들일 때 잠수복 바지, 저고리, 모자, 버선은 받아들였으나 흥미롭게도 장갑은 제외시켰다. 손은 부피당 표면적이 커서 수중에서 열손실이 쉽게 일어나는 부위이다. 손의 온도가 떨어지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물속에서의 작업 수행 능력이 감소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갑 착용은 작업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해녀들이 잠수 장갑을 끼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겨울철 해녀의 작업 시 장갑 착용이 손의 열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겨울철에 해녀가 작업을 할 때, 장갑을 끼는 경우와 끼지 않는 경우에 손의 열손실을 측정하였다. 열손실은 단위시간당 손실되는 열의 양으로 측정하였다. 입수 초기에는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손의 열손실이 증가하는데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빠르게 증가한다. 그런데 입수 초기가 지나면 손의 열손실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데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빠르게 감소한다. 그래서 입수 후 약 20분이 지나면 손의 열손실이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작아지는 기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입수 시 나타나는 손의 열절연도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물체의 열손실은 그 물체의 열절연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열절연도가 커질수록 열손실이 작아진다. 입수 후 손의 열절연도는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입수 후 약 20분이 지나면 손의 열손실이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작아진다. 또 한 팔의 열절연도도 입수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빠르게 증가하여 팔의 열손실은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빠르게 감소한다.

- ① 손의 온도는 해녀의 작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
- ② 장갑 착용 여부는 손과 팔의 열손실에 영향을 준다.
- ③ 입수 초기에는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손의 열손실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 ④ 입수 후 장갑을 안 낄 때는 손의 열손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후 감소하지만 장갑을 낄 때는 그렇지 않다.

문14.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람은 목장에서 황소에게 떠받혀 죽다
- ② 그는 속이 아니꼬워 견딜 수가 없었다.
- ③ 그렇게 가슴에 못이 박이게 만드는 자식이 어디에 있냐고 호통을 치셨다.
- ④ 만두를 집안 식구들과 함께 노나 먹었다.

문1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이V주일V전에V나갔던V놈이V이제는V돌아왔을V걸세.
- ② 전쟁V후V이V나라에서V다섯번째로V겪는V여름이다.
- ③ 그는V은연V중에V자신의V속V뜻을V내비치고V있었다.
- ④ 요즘V성과를V내는V것을V보면V일이V조금V되어V가는듯하다

문16.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그는 무거운 짐을 들어 주었다.
- ② 이 세상에서 재력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③ 모두들 장구 장단에 맞추어 신명 나게 춤을 추었다.
- ④ 일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문17. 다음 괄호 안에 병기된 한자 중에 ‘深’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자의 건강이 **심각**(深刻)한 상태에 있다.
- ②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甚深)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③ 판사의 **심문**(深問)이 한 사람 앞에 세 번씩이나 돌아갔다.
- ④ 고개를 그리로 숙이고 **심사**(深思)와 묵도를 오래오래 하였다.

문18. 다음 중 ‘권세를 마음대로 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 ① 旭日昇天 ② 指鹿爲馬
- ③ 權不十年 ④ 權謀術數

문19. 다음 글을 논리 전개에 맞게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가) 합천군에서 무상급식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군민이 급식재료를 농약 안 치고 화학비료 안 주고 길러서 판다. 급식 메뉴엔 한우 스테이크도 나온다. 학교엔 장독대도 있다.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늘고 소득도 커진다. 합천군이 예산에서 쪼깐 17억여 원이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경제를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가는 부(富)의 외지 유출이 무상급식으로 차단된다. 이 덕분에 인구감소도 둔화되고 교육 여건도 좋아졌다. 이제 타군에서 고교생들이 유학을 올 정도라고 한다. 합천군은 무상급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만으로 교육과 복지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까지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정부가 즐겨 쓰는 말을 빌리자면 ‘녹색 성장’의 실례로 합천군 무상급식만한 게 없다.
- (나) 합천군이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마련한 군 자체 예산은 한 해 17억여 원이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무상급식에 우선순위를 두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폭 8m짜리 2차선 도로 1km를 까는 돈이면 1년 무상급식 예산이 나오더라고 한다. 무상급식은 발상의 전환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무상급식을 나라 곳간 거덜 내는 일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경제전문가들에 대해 합천군은 코웃음을 친다. 합천군 무상급식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 (다) 합천군의 사례를 농촌의 일개 지자체의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 무상급식을 놓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치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무상급식에 이념을 덧씌우고 돈 문제만 따지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공학일 뿐이다.
- (라) 경남 합천군에선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700여 학생 전 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군 재정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한 해 가용예산이 280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하다. 군수가 사회주의자이거나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이어서도 아니다. 군수는 물론 군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중앙 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해야 하니 마니 하며 예산 문제만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만, 합천군은 고교생까지 부모의 소득을 묻지도 않고 공짜로 밥을 먹인다. 합천군이 무상급식에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살리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경향신문 사설 ‘무상급식 합천군 사례가 말하는 것’

- ① (라)→(나)→(가)→(다) ② (다)→(나)→(가)→(라)
- ③ (나)→(다)→(라)→(가) ④ (라)→(가)→(다)→(나)

문20. 다음에 제시된 논증의 결론이 적절한 전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은?

- ①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생명체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동물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만약 스테이크를 먹는 행위가 반드시 우리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맛있기 때문이라면, 스테이크를 먹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 ②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에서는 유혹하는 재미가 있고, 부부나 연인으로 서 갖게 되는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관계를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목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대와의 성관계가 사랑이 있는 성관계보다 더 좋다.
- ③ 베트남전의 참전군인인 김 씨가 걸린 질병의 피해에 대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는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엽제 제조회사는 미국 내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고, 베트남전에서 김 씨가 작전 수행을 하던 지역에는 다량의 고엽제가 살포되었기 때문이다.
- ④ 수학적·정량적 분석 방법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적용되면서 이들 분야의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 이 점은 계량경제학이 경제 현상을 해명하는 데서 이론 광목할 만한 업적이나 실험심리학이 심리 현상에 대해서 제시한 인과적 설명 방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 어 [03회]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문장부호 규정] 난도 中

중괄호({ })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대괄호([])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예)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윤석중 전집(1988), 70쪽 참조]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예) 나이[年歲] 예) 낱말[單語] 예) 손발[手足]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예)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중괄호({ })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예) 주격 조사 { 이 가 }

예) 국가의 성립 요소 { 영토 국민 주권 }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예, 로, 까지) 갔어요.

<오답 피하기>

① 마침표(.)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낱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예) 3.1 운동

*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예) 3·1 운동

② 점표(.)를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예) 5, 6세기

③ 쌍점(:)을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듣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예)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2. [정답] ④

[품사의 구분] 난도 中

‘및’은 부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존명사로 처리된다.

‘및, 또는, 내지, 그리고’ 등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이면 부사로 처리된다.

① 및: 부사.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② 또는: 부사. 그렇지 않으면.

③ 내지: 부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예) 열 명 내지 스무 명

④ 그리고: 부사.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예) 너 그리고 나

‘겸, 대, 등(들)’은 의존명사로 처리된다.

① 겸(兼):

의존명사. 1. (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아침 겸 점심

2. (어미 ‘-을’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말. 예) 명절도 쉴 겸 해서 한번 다녀가게.

② 대(對):

명사. 1. 같은 종류로 이루어진 짝. [비슷한 말] 우대5(偶對). 예) 이 시는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대를 이룬다.

2. 두 사람이나 두 사물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의 상대.

예) 대가 되는 것끼리 모아서 한 쪽에 놓아주세요.

의존명사. 1. 두 짝이 합하여 한 벌이 되는 물건을 세는 단위. 예) 주런 한 대.

2.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

예)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③ 등(等)/들:

의존명사. 1.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예) 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 도시

2.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예) 김치, 된장 등 우리음식이 세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예)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등을 가방에 넣다

3. [정답] ②

[문장성분-서술어] 난도 下

제시된 문장은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서술어만 보고 답을 해서는 안 되고, 문장 내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진호.

㉡ 우리 축구 세계 제패.

㉢ 그가 노래한다. 그는 예쁘다.

4. [정답] ②

[음운의 변동] 난도 上

‘숨이불’은 ‘ㄴ’음의 첨가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나머지는 대치가 공통으로 벌어졌다.

<오답 피하기>

① 굳이[구디→구지]: 구개음화. ‘ㄷ’이 ‘ㅈ’으로 대치가 벌어졌다.

③ 늪름[늪름]: 비음화. 대치가 벌어졌다.

④ 콧날: [코+ㄴ+날(첨가)→콧날→꼴날(대치)→콘날(대치): 꼬]: 사잇소리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이다. 대치와 첨가가 모두 나타난다.

5. [정답] ④

[단어의 형성] 난도 中

‘놀랍다’는 ‘놀라+ㅂ(접미사)+다’, ‘파랑’은 ‘파랑+ㅇ(접미사)’의 형태를 취한 파생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서릿(어근)+발(접미사) - 파생어. ‘서릿’의 ‘ㅈ’은 사이시옷(×)

윗(어근)+웃(어근) - 합성어

② 해(접사)+빨(어근) - 파생어

매(어근. ‘산’의 의미)+나물(어근) - 합성어

③ 먼(어근)+발(어근) - 합성어

눈(어근)+발(접사) - 파생어

- * 접미사 ‘-발’: 1. ‘기세1’ 또는 ‘힘1’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효과1’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 어근 ‘발’: 실이나 국수 따위의 가늘고 긴 물체의 가락.
- * 면발: ‘면발’의 경우는 합성어이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면’이며, 의미도 ‘면의 가락’으로 해석되어 관형격 구성을 이루는 것이므로 [면발]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 * 빗발: 통시적으로 보면 합성어이고, 공시적으로 보면 파생어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파생어로 처리해야 합니다.

■ ‘빗발’의 어원

‘빗발’은 ‘비(雨)+入+발’의 합성어로 사이시옷 ‘ㅅ’이 개재된 형태이다. 18세기 한글 자료에서 ‘빗발’로 처음 나타나 현대 국어에까지 쓰이고 있다. 18세기 자료의 ‘비+발’은 사이시옷을 별도로 적은 표기이다. 반면에 19세기 자료에 나타난 ‘비발’은 사이시옷이 빠진 표기이다.
‘빗발’의 ‘-발’은 생산성이 아주 높은 접미사이다. 접미사 ‘-발’은 ‘잇달아 뻗어나가는 줄기 혹은 뿔뿔한 상태, 혹은 그런 효과나 기운’의 뜻이다. ‘눈발’, ‘땀발’, ‘오줌발’, ‘땀발’ 등과 같은 파생어를 만든다. 현대 국어에서는 ‘화장발’, ‘옷발’과 같은 신조어도 많이 생산하는 접미사이다. 도박관에서 쓰는 용어 ‘꺾발’의 ‘-발’도 이와 같은 접미사이다.

6. [정답] ①

[논리의 오류] 난도 上

원인오환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원인이 아닌 것을 그것의 원인으로 여기는 경우를 말한다.

<오답 피하기>

- ② 잘못된 유추의 오류: 부당하게 적용된 비유에 의해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비슷할 것이라고 여겨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 비교되는 두 유형의 대상들 간에 유사성의 정도는 약하고 차이성의 정도가 강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 ③ 애매어의 오류(equivocation): 단어나 구의 여러 의미들을 혼동하여, 애매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를 말한다.
- ④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가 단어 자체에 원래 존재하는 애매성을 이용한 오류라면,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는 주장하는 쪽이 자기 혼자서 일부러 애매성을 만든 경우이다.

7. [정답] ④

[현대소설의 서사 기능] 난도 中

(A)에서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고 암울해진 ‘나’의 심리가 화려한 배경과 대비되어 강조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인물 간의 갈등해소는 드러나지 않았다.
- ② 대상에 대한 객관적 진술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대한 주관적 진술이 강하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8. [정답] ③

[내용의 일치] 난도 中

“국회에서는 해외계좌의 신고의무 금액을 낮추는 등 여러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라는 진술에서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 [정답] ①

[고전시가의 해석] 난도 中

송순의 가사 ‘관동별곡’의 한 부분이다.

전후의 흐름을 보면, ‘㉠ 아침나절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싫을꼬냐? 마음 놓고 노니’라고 번역해야 적절하다.

* 해석 :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니, 밤은 언제 줄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 아침나절 시간이 부족한데 (자연을 감상하느라고) 저녁이라고 싫을꼬냐? (자연이 아름답지 아니하랴.) 오늘도 (완상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녀석하랴?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터 보니 번거로운 마음이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은 버릴 것이 전혀 없다. 쉴 사이가 없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올) 길이나마 전할 틈이 있으랴. 다만 하나의 푸른 명아주 지팡이가 다 못 쓰게 되어 가는구나. / 술이 익었거나 벗이 없을 것인가. 노래를 부르며 하며, 악기를 타게 하며, 악기를 끌어당기게 하며, 흔들며 온갖 아름다운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 젖혔다가, 시를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하며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복희씨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내더니 이때야말로 그것이로구나. 신선이 어떻든 이 몸이야말로 그것이로구나.

- * 작자 : 송순(宋純)
- * 갈래 : 양반 가사. 은일 가사(隱逸歌辭), 서정 가사(抒情歌辭)
- * 표현 : 활유, 의인, 직유, 은유, 대구, 열거, 과장, 대조, 반복, 생략 등 다양한 수법 동원.
- * 짜임 : 起承轉結의 4단 구성.
- * 체제 : 면양정의 자연의 승경(勝景)
- * 주제 : 대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군은(君恩)
- * 의의 :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한 노래로, 정극인의 「상춘곡」의 계통을 잇고, 정철의 「성산별곡(星山別曲)」에 영향을 주었다.

10. [정답] ④

[어휘] 난도 下

‘제’는 한약 20첩을 가리킨다.

- 필 : 30자 정도의 옷감.
- 땀 : 바느질에서 바늘로 한 번 뜬 눈. / 땀 : 바늘 24개.
- 연 : 종이 전지 500장. / 오리 : 실, 가는 대 같은 것을 세는 단위.
- 제 : 한방 약 20첩. / 죽 : 버선이나 그릇 등의 열 벌.
- 첩 : 한방 약 1봉지. / 타래 : 실이나 새끼 등을 감아서 틀어 놓은 분량의 단위.
- 토리 : 둥글게 실을 감은 문치.

11. [정답] ④

[현대문학] 난도 中

작가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제시문의 설명과 관련된 작품 비평의 내용을 선택지에서 확인하면 명확히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제시된 설명은 김영랑의 「독을 차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술 가운데 “화자를 둘러싸고 뒤흔드는 것들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통해 작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이육사의 「절정」 : 극한 상황의 초극 의지를 주체화한 작품.
- ② 기형도의 「절투는 나의 힘」 : 짧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주체화한 작품이다.
- ③ 김수영의 「폭포」 : 부정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 삶의 추구를 주체화한 작품이다.

12. [정답] ①

[어법] 난도 下

‘모름지기’는 ‘~ 해야 한다’와 호응하므로, ①은 ‘공무원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정도로 수정되어야 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성분 간의 호응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한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②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③ ‘그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보기>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④ ‘어머니’에게 ‘외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서술어 ‘드린’에 맞추어 높임의 격 조사 ‘께’를 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3. [정답] ④

[일지] 난도 上

마지막 문단에서 “입수 후 손의 열절연도는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입수 후 약 20분이 지나면 손의 열손실이 장갑을 낄 때보다 안 낄 때 더 작아진다.”라고 하였다. 해녀가 입수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장갑을 낄 때 역시 손의 열손실이 일어난데, 안 낄 때의 열손실이 더 작다고 했다. 장갑을 낄 때 역시 장갑을 안 낄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후 감소한다고 말해야 옳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진술이다.

14. [정답] ③

[한글맞춤법] 난도 中

‘박이다’와 ‘박히다’는 주의를 요한다. 제시된 것은 ‘박히게’가 맞는 것이다

- * 박이다: 1.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베다. 예) 주발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여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선생 티가 박인 삼촌은 언제나 훈계조로 말한다. 2.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살이 생긴다. 예) 마디마디 못이 박인 어머니의 손
- * 박히다: 1. ‘박다1(1. 두들겨 치거나 틀어서 꽂히게 하다)’의 피동사. 2. ‘박다1(2. 붙이거나 끼워 넣다)’의 피동사. 3. ‘박다1(3. 속이나 가운데에 들어 넣다)’의 피동사.
- * 관용구
- ① 못(을) 박다
1. 다른 사람에게 원통한 생각을 마음속 깊이 맺히게 하다. 예) 그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불효를 저질렀다.
2. 어떤 사실을 꼭 집어 분명하게 하다. 예) 그녀는 이번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마디로 못을 박아 이야기하였다.
- ② 못(이) 박히다
1. 원통한 생각이 마음속 깊이 맺히다. 예) 아버지께서는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히게 만드는 자식이 어디에 있다고 호통을 치셨다.
2. ((주로 ‘못 박힌 듯’ 꼴로 쓰여)) 한자리에 굳어 버린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다. 예) 놀란 나머지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3. 한곳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예) 그의 시선은 어군 담지기 쪽으로 못 박혀 있었다.

<오답 피하기>

기>

- ① 떠받히다: 「...에/에게」 ‘떠받다1(머리나 뺨로 세게 밀어 부딪치다)’의 피동사.
- * 떠받치다: 1.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서 위로 받쳐 버티다. 예) 담벼락을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 2. 나라나 조직 따위를 든든하게 지탱하다.
- ② ‘아니꼬워’가 맞다. ‘뉘’ 불규칙 가운데 ‘뉘다-도와, 굶다-고와’ 이외에는 ‘어’가 결합되어 ‘워’ 형태를 취한다.
- ④ ‘노느다, 노나’ 형태가 맞다. ‘-’ 탈락이 벌어진다.

15. [정답] ①

[한글맞춤법-띄어쓰기] 난도 中

- * ‘일주일’은 ‘한 주일 또는 칠 일’을 뜻하는 합성어로 붙여 써야 하지만, ‘이V주일’은 합성어로 처리되지 않아 띄어 써야 옳다.
- * ‘전’은 여기에서 ‘이전3’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앞 말과 띄어 써야 한다.
- * ‘결세’는 ‘것일세’의 줄임 형태로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쓰는 것이 합당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다섯V번째’를 포함하여 관형사 뒤에 ‘번째’가 이어진 말은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 ③ ‘은연중’이나 ‘속뜻’은 합성어로 붙여 써야 한다.
- * 은연중: 남이 모르는 가운데.
- * 속뜻: 1.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뜻. 2. 말이나 글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뜻.
- ④ 본용언에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되어가는 V듯하다, 되어V가는V듯하다’의 형태를 취해야 옳다.

기억해 둘 만하다 / 읽어 볼 만하다/ 도와 줄 법하다 / 되어 가는 듯하다
기억해둘 만하다 읽어볼 만하다 / 도와줄 법하다 / 되어가는 듯하다

16. [정답] ③

[문장의 짜임] 난도 中

‘모두들 장구 장단에 맞추어’와 ‘모두들 신명 나게 춤을 추었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안은 문장에 속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무거운’이 관형절. 관형절 안은 문장.
- ② ‘재력이 전부는 아니라고’가 인용절. 인용절 안은 문장
- ④ ‘차절(이) 없이’가 부사절. 부사절 안은 문장.

17. [정답] ③

[잘못 쓰인 한자] 난도 上

‘심문’의 ‘深問’은 ‘깊은 물음’이라 하겠는데, 문맥에 맞지 않다. ‘審(살필 심) 問(물을 문)’이 들어가야 옳다. 나머지는 깊은 ‘심(深)’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 審(갈마들 번). 訊(물을 신) 問(물을 문).

18. [정답] ②

[한자성어] 난도 中

指鹿爲馬(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대라는 뜻으로, ①사실(事實)이 아닌 것을 사실(事實)로 만들어 강압(強壓)으로 인정(認定)하게 됨. ②윗사람을 농락(籠絡)하여 권세(權勢)를 마음대로 함

<오답 피하기>

- ① 旭日昇天(옥일승천):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뜻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세력(勢力)이 성대(盛大)해짐을 이르는 말.
- ③ 權不十年(권불십년): 권세(權勢)는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뜻으로, 권력(權力)은 오래가지 못하고 늘 변(變)함, 또는 영화(榮華)는 일시적(一時的)이어서 계속(繼續)되지 않음.
- ④ 權謀術數(권모술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정이나 도덕을 가리지 않고 권세(權勢)와 모략(謀略) 중상(中傷) 등(等) 갖은 방법(方法)과 수단(手段)을 쓰는 술책(術策)을 가리킨다. 술책을 뜻하는 것이지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19. [정답] ①

[단락의 순서] 난도 中

신문 사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구성 방식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 ① 서론을 흥미를 유발하려고, 벌어진 사건이나 현황을 제시한다.
- ② 결론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나 전망을 제시한다.
- ③ 단락과 단락 사이의 연결 어휘를 찾아보아야 한다.
- ④ 내용은 개괄적인 것에서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찾아보면 된다. ‘경남 합천군에선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700여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라는 소식을 먼저 밝히고 있으니 처음에 들어가기에 적당하다. 그렇다면 ①과 ④로 압축된다. (가)에서 무상급식 실시의 결과 지역 경제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혔다. (라) 다음에 (가)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바로 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본다면 (다)에서 ‘합천군의 사례를 농촌의 일개 지자체의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하여 앞서 살핀 합천군의 사례를 통해 무상급식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정치권을 질타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것은 결론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

20. [정답] ①

[논증-결론] 난도 上

대전제: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생명체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p)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q) (p → q)

소전제: 스테이크를 먹는 행위는(r) 궁극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동물의 고통을 수반한다.(p) (r → q)

소전제: 만약 스테이크를 먹는 행위가(r) 반드시 우리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맛이기 때문이라면(p) (r → p)

결론: 스테이크를 먹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r → q)

(r → p → q ∴ r → q)

<오답 피하기>

- ② 결론에서 사랑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대와의 상관관계의 비교 대상으로

사랑의 감정이 있는 성관계가 제시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성관계가 더 좋다고 했다. 그런데 앞선 전제에 ‘사랑이 있는 성관계’에 대한 언급, ‘사랑이 있는 성관계’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따위의 근거 제시가 없다.

③ 전제 1: 고엽제 제조회사는 미국 내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전제 2: 베트남전에서 김 씨가 작전 수행을 하던 지역에는 다량의 고엽제가 살포되었다.

결론: 베트남전의 참전군인인 김 씨가 걸린 질병의 피해에 대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는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김 씨가 걸린 질병이 고엽제에 따른 질병인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 씨의 질병이 고엽제에 따른 질병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김 씨가 미국에 거주함, 또는 고엽제 제조회사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에 따른 발병일 때 손해배상을 한다는 전제 또한 깔려 있어야 함당하다.

④ 수학적인 정량적 분석 방법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적용되면서 이들 분야, 곧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계량경제학, 실험심리학을 들어 그 바탕을 삼으려 한다. 이것은 설명, 그 중에서도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역 추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문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For all of Obama's brilliance and eloquence, it is hard to imagine that he would be a national figure at this early stage of his career, if not for his African father.

- ① liveliness ② confidence
③ tranquility ④ oratory

※ [문 2. ~ 문 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 2.

Even though globalization makes our lives better, cultural differences around the world create _____ for businesses entering foreign markets and necessitate changes to their daily business operations, whether it's employing workers in a new region or communicating the value of their product to a new audience.

- ① viability ② prosperity
③ hurdles ④ denunciations

문 3.

In the aftermath of full lockdown, with homeschooling and other caring responsibilities there to disrupt our regular schedules, some people may feel they need to prove to their employer just how hard they are working, especially if this is coupled with a fear about redundancies in the current climate. They willingly take on more projects despite being overloaded and juggling other commitments. This level of engagement can lead to an unhealthy _____ to work — where they attempt to be 'everything to everyone' in their lives. It's a slippery slope; maybe they feel they haven't done enough today, so they do just a little bit more.

- ① approach ② injury
③ award ④ complication

문 4.

The ruling party leadership's ethical insensitivity in addition to its sheer irresponsibility shows why many voters and political analysts say there is no future for the party. Belatedly aware of this incident's potential impact, they _____ the police to get to the bottom of it in what voters view as a political gesture for damage control.

- ① clamped down ② called on
③ brought up ④ put out

문 5.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I decide that it's what I want to do and that I think I'm the best option for the party and for the country," Christie said. The former governor said deferring to someone during an election shows "weakness and indecision."

- ① intrude ② postpone
③ recede ④ yield

※ [문 6. ~ 문 7.]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문 6.

- ① 그녀는 심한 변덕쟁이라서 사귀기 힘들다
→ She is hard to get along with because she is extremely moody.
② 그 작업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알 수 없다.
→ There is no telling how much the work will cost.
③ 전국 대회가 3년에 한번 한국에서 열린다.
→ National competitions are held in Korea every three years.
④ 신선한 공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불빛이 마을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 As I opened the window for fresh air, I saw strange lights hovered over the town.

문 7.

- ① 그 여배우는 시상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특별히 제작했다.
→ The actress had a gown made specially for the awards ceremony.
② 그 균형은 경쟁이 나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게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The balance helps me be prepared for any game that a competition may throw at me.
③ 남편과 이 상황을 의논하시고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 Please discuss the situation with your husband, and let him handle it.
④ 교통경찰은 과속 차량을 길가로 차를 세우게 했다.
→ The traffic police made the speeding vehicle pull over to the roadside.

문 8. 어법상 옳은 것은?

- ① Of all the child stars, the 8-year-old boy seems most adorably.
② We get older and sad to say, we all put on weight more easily.
③ Besides worked as a doctor, he also writes novels in his spare time.
④ Keeping traditions gives us old and familiar something to help deal with change.

문 9.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emantic dimension of the term 'turn' denotes a motion or change. As a term for analytical strategies in the field of cultural science, the motion expressed in the 'turn' is the shift towards a new analytical focus.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theory, the term digital 'turn' means more than a change of analytical perspective or paradigm shift: According to Kuhn (1970) the paradigm shift represents the emergence of a new analytical perspective on the world. With this new perspective, new methodological assumptions and research strategies emerge. Kuhn's concept of the paradigm shif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at the media landscape of an entire field may change. The change inherent in the digitalization process challenges the established media of the academic field.

※ methodological 방법(론)의

- ① Remaking Identities on SNS
- ② Linguistic Turn Versus Digitalization
- ③ How to Share Information in the Digital Age
- ④ The Digital Turn as Term for An Ongoing Media Change

문10.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dvent of the sharing economy and the presence of peer-to-peer platforms that empower consumers to buy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from producers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electricity sector.

- (A) For example, the Dutch company Vandebron offers individuals the option to buy electricity straight from local farmers with excess electricity production from solar panels, wind turbines, or biogas installations and to avoid the utilities, which are "fundamentally unsuited to providing renewable energy because they have legacy investments in fossil fuels, which they need to recover".
- (B) Similarly, in the United Kingdom the start-up Open Utility has partnered with the utility Good Energy to match small generators of renewable energy with potential buyers in their local community. Given these recent developments, in the near future a growing number of individuals may become "prosumers"--both producers and consumers of electricity.
- (C) Rather than organizing YIMBY campaigns and investing in local renewable energy cooperatives, individuals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may have the option to buy green power directly from owners of wind turbines, solar panels, and biomass facilities. This is already happening in some countries with deregulated electricity markets.

- ① (C) - (A) - (B) ② (A) - (C) - (B)
- ③ (B) - (C) - (A) ④ (C) - (B) - (A)

문11.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Why did you have to take a two hour lunch today?
B: Keep this under your hat, okay?
A: Sure. What's the big secret?
B: I needed the extra hour for lunch to get a marriage license.
A: What?! You and Paula are getting married?
B: _____
A: My lips are sealed. When did you pop the question?
B: Last week. We were at a restaurant and I just asked her there in front of everyone.

- ① Yes but don't let anyone know yet.
- ② Sure but that's on the tip of my tongue.
- ③ Probably, but the proposal was right after we first met.
- ④ Definitely, but that's hard to come by.

문12.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 ① A: There's so much to choose from. I can't make up my mind.
B: Take your time. There's no need to rush.
- ② A: I'm looking forward to breakfast at that restaurant you told me about.
B: Oh you're going to love it. I'm a regular there.
- ③ A: I bumped into Gary yesterday. He looked like he was limping.
B: He was never sorry for that. That's because he's always in such a great hurry.
- ④ A: The wind has really picked up, but I think it can't be that bad. Let's go for a walk.
B: Maybe we should go for a walk later. We should wait until it dies down.

문18.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you have a financial challenge, don't limit your meetings to financial people. Bring in the marketers, administrative assistants, technicians, custodians, salespeople, lawyers, and representatives from every other department. A diversity of minds ensures a diversity of ideas. This is the modus operandi at Dreamworks Animation—everyone from top to bottom is encouraged to present ideas on new films and current projects. You may well discover that some of the most innovative ideas come from those not directly connected to a project. They are often able to see things with a different set of eyes. As the former chair of an academic department, I got one of our most innovative ideas from the administrative assistant in a completely different department. She saw something I was too blind to see.

- ① We should recognize that everyone has creative talent.
- ② Meetings should be expanded to various areas.
- ③ We should conceptualize innovation as personality.
- ④ Departments should contribute to unifying individuals.

문19.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survival and wellness require a balance between optimism and pessimism. Undue pessimism makes life miserable; however, excessive optimism can lead to dangerously risky behaviors. Successful living requires a fine balance between optimism and pessimism. Over-optimism may encourage one to take uncalculated financial risks that will end up disastrously. (A), over-confidence may lead to negligent and reckless behaviors - e.g. not taking the necessary precautions to prevent common health and fires hazards - which may result in a catastrophe. (B), worrying too much about potential dangers and focusing one's energy on what might go wrong leads to avoidance behavior, passivity, exacerbation of low mood and an increase in th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refore, the optimal equilibrium is a cautious optimism which is firmly grounded in reality.

- | | |
|----------------|-------------------|
| (A) | (B) |
| ① Nevertheless | In addition |
| ② Furthermore | For example |
| ③ Similarly | On the other hand |
| ④ However | In the same way |

문20.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But choosing a husband was another matter.

When Nirupama Pathak left this remote mining region for graduate school in New Delhi, she seemed to be leaving the old India for the new. (①) Her parents paid her tuition and did not resist when she wanted to choose her own career. (②) Her family was Brahmin, the highest Hindu caste, and when Ms. Pathak, 22, announced she was secretly engaged to a young man from a caste lower than hers, her family began pressing her to change her mind. (③) They warned of social ostracism and accused her of defiling their religion. (④) Days after Ms. Pathak returned home in late April, she was found dead in her bedroom. The police have arrested her mother, Sudha Pathak, on suspicion of murder, while the family contends that the death was a suicide.

1.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eloquence [éləkwəns] n. 웅변, 능변

if not for ~ 가 없었다면, ~가 아니었다면

oratory [ɔːrətɔːri] n. 웅변(술), 수사(修辭)

tranquility [træŋkwɪləti] n. 평온, 침착

confidence [kɒnfɪdəns/kɒn-] n. 신용, 신뢰, 비밀, 자신감

[해석]

오바마의 탁월함과 웅변도 불구하고, 그의 아프리카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가 그의 경력의 초반에 국가적인 인물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2. [정답] ③

[해설]

빈칸에는 부정 어조의 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답은 ③, ④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해로 볼 때 ‘문화 차이’가 문제 내지는 ‘장애’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단어숙어정리]

necessitate [nɪsɛsəteɪt] vt. 필요로 하다, 요하다, (결과를) 수반하다

viability [vaɪəbɪləti] n. 생존 능력, 실행) 가능성

denunciation 탄핵(public condemnation), 공공연한 비난

[해석]

비록 세계화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지만, 세계의 문화적 차이는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장애물을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지역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든 아니면 그들의 상품의 가치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든 간에 그들의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변화를 필요로 한다.

3. [정답] ①

[해설]

빈칸 이하가 힌트다. 즉 앞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함에도 또 다른 일을 맡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빈칸 이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해결책, 접근법’임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또한 어조로 접근할 수 있다. 즉 글의 어조는 부정이 돼야 하는데 이미 앞에서 unhealthy라고 말하고 있어 빈칸에는 긍정의 어조가 필요하다. 결국 ②, ④는 부정적인 어조이므로 이는 답이 될 수 없고 ③은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단어숙어정리]

in the aftermath of ~의 여파로

be coupled with ~와 결부되다, 결합되다

take on ~을 떠맡다, 착수하다

engagement [ɛŋɡeɪdʒmənt] n. 약속, 업무, 약혼

slippery [slɪpəri] a. (길·땅 따위) 미끄러운

slippery slope 미끄러운 비탈길, 파멸[파국]의 길,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

complication 혼란, 말썽거리, (예상 외로) 곤란한 사정

[해석]

완전 폐쇄의 여파로, 홈스쿨링과 다른 보살핌의 책이 우리의 정규 일정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특히 현재의

환경에서의 정리해고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어 있다면, 고용주에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들은 과부하가 걸려 있고 다른 일들을 힘겹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는다. 이러한 수준의 업무 참여는 일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접근법[해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한다. 그것은 미끄러운 비탈길이다. 아마도 그들은 오늘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한다.

4. [정답] ②

[해설]

빈칸 앞의 분사구문의 어조가 긍정이다. 따라서 빈칸에도 긍정 어조의 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조로 본다면 부정적인 어조의 ①, ④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런데 ③의 경우는 의미상 옳지 않고 또한 빈칸 다음에 to부정사로 인해 ‘요청, 요구’의 말이 오는 것이 옳겠다. 요구 동사는 다음에 to부정사를 취하기 때문이다.

[단어숙어정리]

belated [bɪleɪtɪd] a. 늦은, 뒤늦은

get to the bottom of 진상을 규명하다, 해결하다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clamp down ~을 단속하다, 탄압하다

call on 요구하다, 요청하다

bring up 양육하다, (화제 따위를) 내놓다

put out (불을) 끄다, 내밀다, 혼란시키다

[해석]

여당 지도부의 순전한 무책임과 더불어 윤리적 무감각은 왜 많은 유권자들과 정치 분석가들이 당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의 잠재적 영향을 뒤늦게 알고서 그들은 경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피해 축소를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는 것이다.

5.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defer 양보하다, 굴하다(yield, submit, succumb), 미루다, 존중하다

intrude 침입하다

recede [rɪsɪd] vi. 물러나다

[해석]

크리스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당과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주지사는 선거 때 누군가에게 굴하는 것은 "약함과 우유부단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6. [정답] ④

[해설]

① 본래 It is hard to get along with her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이동한 것이다. 즉 it is hard [easy, difficult, tough, pleasant] to v의 구조에서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따라서 바르게 쓰였다. 물론 because~이하의 주어+동사를 수반하고 있어 절의 형태를 바르



게 갖추고 있다.

② 동명사의 관용표현 **there is no v-ing**(~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의 표현을 아는지 묻고 있다. 또한 **how much the work will cost**는 간접의문문의 어순이 바르게 쓰였다.

③ **'every' 기수 복수명사**의 구조로 **'~마다, ~에 한 번'**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바로 이 표현을 아는지 묻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복수명사를 단수명사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명사 **years**로 한 것은 바르게 쓰였다. 물론 주어 **National competitions**와 동사 **hold**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므로 **are held**로 한 것도 옳다.

④ 지각동사가 **'목적어+원형부정사[현재분사, 과거분사]**의 형태를 취한다. 물론 과거분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가 수동일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strange lights**와 **hover**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다. 결국 수동의 과거분사가 아닌 능동의 현재분사가 돼야 한다. **hovered**를 **hovering**으로 해야 한다. 물론 **hover**는 자동사로만 사용하는 동사로 수동의 과거분사가 사용될 수도 없다.

7. [정답] ②

[해설]

① 사역동사 **have**의 용법을 묻고 있다. 사역동사 **have**는 본래 원형부정사를 보어로 취하지만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분사가 된다. 목적어 **a gown**와 **make**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므로 결국 과거분사 **made**로 한 것은 옳다.

② 사역동사 **help**은 본래 원형부정사, **to**부정사를 취한다. 그리고 이때 만일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면 **be pp**, 또는 **to pp** 형태로 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분사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prepared**를 **be prepared**로 해야 한다.

③ 사역동사 **let**이 원형부정사 **handle**을 사용한 것은 옳다. 물론 타동사 **discuss**가 목적어 **the situation**을 바로 취한 것도 옳다.

④ 사역동사 **make**가 원형부정사로 **pull**를 취하고 있다.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를 보어로 취하므로 당연히 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참고로 **pull over**는 자동사로 '차를 길옆에 대다'는 의미가 된다.

8. [정답] ②

[해설]

① **seem**동사는 보어를 취한다. 보어는 형용사가 된다. 따라서 부사 **adorably**를 형용사 **adorable**로 해야 한다.

② 단순히 **sad to say**(슬픈 얘기지만)라는 표현을 아는지 묻고 있다. 바르게 쓰였다. 물론 **and**로 앞의 **We get~**와 **and** 이하의 **we all put on~**를 연결하고 있다.

③ **besides**은 전치사다. 전치사 다음에 과거나 과거분사가 올 수 없다. 전치사는 동명사를 취한다. 따라서 **worked**가 아니라 **working**으로 해야 한다.

④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앞이 아닌 뒤에 위치한다. 따라서 **old and familiar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old and familiar**로 해야 한다.

[해석]

- ① 모든 아역 스타들 중에서, 이 8살 소년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다.
- ② 우리는 나이가 들고 슬프게도, 우리 모두는 더 쉽게 살이 쪼든다.
- ③ 그는 의사로 일하는 외에 여가 시간에 소설도 쓴다.
- ④ 전통을 지키는 것은 변화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오래 되고 익숙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준다.

9. [정답] ④

[해설]

제목을 고를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은 핵심어를 찾는 일이다. 물론 글에서 핵심어는 반복되므로 반복되는 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digital turn**와 **change**가 된다. 그런데 이 단어가 들어간 보기는 하나밖에 없다. 참고로 이 글의 주제문은 지문 첫 문장이 된다. 또한 이후 문미로 가면서 **media**가 등장하고 있어 이를 두 번째 핵심어로 잡는 것도 좋다.

[단어숙어정리]

semantic [siméntik] a. 의미론(상)의

denote [dinóut] vt. 나타내다, 의미하다

analytical [ænəlítik] a. 분해 [분석] 의

methodological [mèθədələdʒikəl] a. 방법(론)의

take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inherent [inhíərənt] a. 고유의, 내재적인

[해석]

'턴'이라는 용어의 의미적 차원은 움직임이나 변화를 의미한다. 문화 과학 분야의 분석 전략 용어로서, '턴'으로 표현되는 움직임은 새로운 분석 초점으로서의 전환이다. 미디어 이론의 관점에서, 디지털 '턴'이라는 용어는 분석적 관점이나 패러다임의 변화 그 이상을 의미한다. 쿤(1970)따르면,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분석적 관점의 출현을 나타낸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더불어, 새로운 방법론적 가정과 연구 전략이 나타난다. 쿤의 패러다임 전환 개념은 전체 분야의 미디어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디지털화 과정에 내재된 변화는 학술 분야의 기존의 미디어에 도전한다.

[보기해석]

- ① SNS에서의 아이디 재형성
- ② 언어적 전환과 디지털화
- ③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공유 방법
- ④ 지속적인 미디어 변화를 위한 용어로서의 디지털 턴

10. [정답] ①

[해설]

(C)가 맨 앞에 위치하겠다. 바로 주어진 문장 **~to buy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from producers~**에 대한 설명으로 (C)에서 **~to buy green power directly from owners~**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A)에서 말하는 **For example**은 (C)에서 말하는 **some countries**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some countries**에 대한 예로 (A)에서 **the Dutch company Vandebrom**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A) 다음에는 (B)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B)에서 말하는 **Similarly, in the United Kingdom**이 (A)에서

말하는 the Dutch~와의 비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단어숙어정리]

advent [ædvent, -vənt] n. 도래(到來), 출현

empower [empáwə] vt. ~에게 권력 [권한] 을 주다 (authorize), (...을) 할 수 있게 하다

deregulate [dirégjulèit] vt. 규제를 해제하다

biomass 생물 자원 《어느 지역내에 현존하는 생물의 총량》 ; 바 이오매스 《열자원으로서의 식물체 및 동물 폐기물》

utility (수도·전기·가스·교통기관 등의) 공익 사업(설비 [시설])

biogas 생물 가스 《미생물의 작용으로 유기 폐기물에서 생기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 기체》

partner with ~와 협력하다

[해석]

공유 경제의 도래와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P2P 플랫폼의 존재는 전기 부문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YIMBY 캠페인을 조직하고 지역 재생 에너지 협동조합에 투자하는 대신, 기후 변화를 우려하는 개인은 풍력 터빈, 태양 전지판 및 바이오매스 시설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녹색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전기 시장의 규제를 철폐한 몇몇 나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회사인 Vandebron은 개인들에게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또는 바이오 가스 설비로부터 과잉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들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그리고 그들이 회수를 필요로 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전통 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제공에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공공설비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신생 Open Utility는 소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지역 사회의 잠재적 구매자를 연결하기 위해 공익 기업 Good Energy와 제휴했다. 이러한 최근의 발전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점점 더 많은 수의 개인들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들 모두 "프로슈머"가 될 것이다.

11. [정답] ①

[해설]

빈칸 바로 다음에서 ‘내 입을 봉하고 있을 게’라고 말하는 것으로 정답을 판단할 수 있겠다.

[단어숙어정리]

keep under one's hat ~을 비밀로 하다

My lips are sealed 입 봉하고 있을게

pop the question 청혼하다

on the tip of one's tongue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입안에서 맴도는

come by 손에 넣다

[해석]

A: 오늘은 왜 점심 먹는데 두 시간이나 필요했어?

B: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A: 그럼.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거야?

B: 결혼 허가서 받느라고 점심시간이 1시간 더 필요했어.

A: 뭐?! 너 풀라하고 결혼해?!

B: 응. 한테 아직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A: 입 봉하고 있을게. 언제 청혼했어?

B: 지난주에. 식당에 있다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청혼했어.

12. [정답] ③

[해설]

정답인 ③에서 A가 하는 말은 ‘게리를 만났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것인데 B는 ‘미안해하지 않고 서두르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어 대화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take your time 시간 여유를 가져, 서두르지 마

bump into ~와 우연히 만나다

limp [limp] vi. 절뚝거리다

[해석]

① A: 종류가 너무 많다. 뭐 골라야 될지 못 정하겠어.

B: 천천히 골라. 서두를 필요 하나 없어.

② A: 네가 말하던 식당에서 빨리 아침 먹어보고 싶다.

B: 아 정말 좋아할 거야. 난 거기 단골이야.

③ A: 나 어제 우연히 게리와 마주쳤어. 그런데 다리를 저는 것 같더라.

B: 그는 그것에 대해 절대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항상 매우 서두르기 때문이다.

④ A: 바람이 정말 거세지지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 산책하자.

B: 산책은 나중에 가야할 것 같은데. 바람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13. [정답] ②

[해설]

① 문두 첫 문장 men and women speak in particular ways mostly because those ways are associated with their gender. 에 해당한다.

② 지문 중간의 Men often seek straightforward solutions to problems and useful advice에 위배된다. 즉 이는 남성의 이야기 방식이지 여성의 이야기 방식이 아니다.

③ 지문 중간의 They also stick to one topic for a long time에 해당한다.

④ 지문 마지막 문장 "over time, establish a reasonably stable hierarchy, with some men dominating conversation and others talking very little"에 해당한다.

[단어숙어정리]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varying degrees of 다양한

rapport [ræpó:r] n. (친밀한·공감적인) 관계, 신뢰감

straightforward [strèitfó:rwórd] a. 똑바른, 정직한, 솔직한

intimacy [íntəməsi] n. 친밀함, 친교

current affairs 시사

hierarchy [háiorà:rki] n. 계급 구조, 계층

[해석]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우리 각각에 있어서 남성적, 여성적 언어 특징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다르게 말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대개 그들의 성별과 연관되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말한다. 남성과 여성이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타일은 "토론 대 관계", "보고 대 관계" 또는 "경쟁 대 협력"으로 묘사되어 왔다. 남자들은 종종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과 유용한 조언을 찾는 반면, 여자들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관심과 공감을 보임으로써 친밀감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Jennifer Coates는 자신의 책 "여성, 남성, 언어"에서 남성만을 위한 토론 그룹과 여성만을 위한 토론 그룹을 연구한 결과, 여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한 주제를 오랫동안 고수하고, 모든 말하는 사람들이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반면에, 남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와 감정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사, 여행, 스포츠 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했다. 주제는 자주 바뀌었고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남자들은 대화를 지배하고 다른 남자들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상당히 안정적인 계층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14. [정답] ②

[해설]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글의 어조로 풀거나 아니면 핵심어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결하면 된다. 지문 첫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art and science**가 된다. 이 말들이 ②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 모두에 들어 있다. 그리고 글의 전개를 보면 모두 **Albrecht Dürer**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②번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단어숙어정리]

bring together 하나로 모으다, 묶다

capitalize on ~을 이용하다

copperplate 구리판, 동판 (인쇄)

engraving 조각, 조각술, 조판술

treatise [tri:tis] n. (학술) 논문

geometry [dʒi:ámətri/dʒióm-] n. 기하학

goldsmith 금세공인

stonemason 석수, 석공

optics 광학

[해석]

인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술과 과학을 하나로 모았고, 이 상황을 활용한 사람 중 한 명은 **Albrecht Dürer**였다. 그는 동판 조각의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익혔고 원근법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를 여행했다. 인문주의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새로운 번역과 논평을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또한 광범위하게 무시당한 고전 작가들과 철학적인 관점들을 되찾았다. 그는 새로운 예술이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었고 특히 과학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그래픽적으로 구성적인 것으로서 수학에 기초한다고 믿었다. 1525년에 그는 '화가들뿐만 아니라 금세공, 조각가, 석공, 목수들, 그리고 측량에 의존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A Course in the Art of Measurement with Compass and Ruler**이라는 제목의 기하학과 원근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Dürer의 책은 원근법과 광학의 새로운 응용에 대해 설명했다.

15. [정답] ③

[해설]

①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 **Planning**가 되고 **following long years of work**가 앞의 동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가 된다. 물론 **follow** 타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능동의 현재분사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of great concern**는 형용사 역할로 **is** 동사의 보어가 된다. 따라서 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② 'consider+목적어+to be 보어'의 구조가 수동이 된 것이다. 물론 마지막의 **in the past**로 인해 시제를 과거로 사용한 것도 옳다. 또한 주격관계대명사 **that** 다음의 수는 복수 선행사 **themes**로 인해 **were**가 된 것이다.

③ **differ**는 동사다. **be**도 동사이므로 동사가 중복된 것이다. 따라서 **differ**를 형용사 **different**로 하거나 아니면 **be**를 삭제하고 **differ**를 동사로 할 수도 있다.

④ '세계에서 ~번째'라고 할 경우 'the world's 서수 ~'의 표현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broadcast**가 수동이 된 것을 확인한다. 물론 타동사 **broadcast**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수동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

① 오랜 기간 일한 후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이다.

② 오늘날 그녀의 작품은 과거에는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던 작품의 주제로 인해 칭송 받고 있다.

③ 2006년과 2009년의 평가 결과는 다양했지만 이번에는 시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④ 뉴욕시의 **WEAF**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세계 최초의 라디오 광고가 방송되었다.

16.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전반적으로 글의 어조를 긍정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빈칸 다음에 '기대치'라는 말이 있어 결국 긍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낮추다'고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이어지는 문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부정적 어조의 말을 선택하면 된다. 부정적인 어조를 지닌 보기는 하나밖에 없다. 또한 ③, ④는 동의어이므로 이 둘은 답이 될 수 없다.

[단어숙어정리]

eat into ~을 잠식하다

break away from ~에서 도망치다, 벗어나다

unsustainable 떠받칠 수 없는, 유지 [지지] 할 수 없는

breakneck 위험할 정도로 빠른, 정신없이 달려가는

trash 파괴하다

unserviceable 쓸모없는, 실용성 없는

speed up 속도를 더 내다[높이다]

weigh on (무거운 짐이 되어) 압박하다, 괴롭히다

lead to ~로 이어지다, 야기하다

give rise to 생겨나게 하다

[해석]

많은 나라들에게, 30년 만에 가장 낮은 GDP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공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둔화하고 있

는 내수와 미국의 관세가 성장을 잠식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무역 전쟁이 실제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2019년의 이 6.1퍼센트의 GDP 수치는 정부의 목표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수 년 동안 기대치를 점차 낮추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은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채의 폭발로 이어진 수년간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파른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17. [정답] ④

[해설]

일단 글의 전반적 어조, 특히 빈칸 다음 문장의 어조가 긍정이므로 ①, ③은 답이 될 수 없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빈칸 바로 다음 문장만으로도 정답인 ④를 추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후의 openly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cover up for ~을 감싸주다(=protect)

restraint [ristréint] n. 제지, 금지

[해석]

점점 더 많은 리더들이 원격으로 일하거나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들과 함께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팀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솔직함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더 사실적일수록, 그들은 널 더 믿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적절할 때, 여러분의 약점, 좌절감, 그리고 고통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만약 직원이 실수를 한다면, 그렇게 말해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말고, 그런 일이 없었던 척도 하지 말고, 그나 그녀를 감싸주지도 마라.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당신의 손에 그들의 생계를 맡기고 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18. [정답] ①

[해설]

문제의 힌트는 상당히 많다. 첫째는 문두 문미에서 반복되는 단어, ideas, innovative ideas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된다. 바로 이 ideas을 creative talent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간단하게는 문두 첫 문장, 그리고 지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답을 추론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 글의 각 문장은 모두 주제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하게 하고자 말, 즉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또 다른 핵심어는 every, everyone이 될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limit A to B A를 B에 제한하다

bring in 들여오다, 가져오다, 받아들이다

custodian [kʌstədiən] n. 관리인

a diversity of 다양한

modus operandi 작업 방식, 방법, 절차

may well 틀림없이 ~할 것이다

[해석]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회의를 재정적인 사람들로 제한하지 마라. 마케팅 담당자, 행정 보조원, 기술자, 관리인, 영업 사원,

변호사 및 다른 모든 부서의 대표들을 데려오라. 다양한 생각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장한다. 이것은 Dreamworks Animation의 작업 방식이다. 위에서 아래로 이르는 모든 사람이 새 영화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권장을 받는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일부는 프로젝트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종종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 전 어느 학술 부서장이었던 나는 전혀 다른 부서의 행정 보조원으로부터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녀는 내가 너무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보기해석]

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② 회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③ 우리는 혁신을 개성으로 개념화해야 한다.

④ 부서들은 개인들을 통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19. [정답] ③

[해설]

문두 첫 문장이 주제문인 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문두에서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첫 번째 빈칸은 앞의 over-optimism을 그리고 뒤에서는 over-confidence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둘은 실제로는 거의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것을 서로 비교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빈칸은 그 앞의 over-confidence를 그리고 그 뒤는 worrying too much를 말하고 있어 이 둘은 서로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wellness 건강

undue 지나친, 과도한, 부당한

end up 결국 ~하게 되다

negligent [néglidʒənt] a. 태만한, 부주의한

reckless [réklis] a. 분별없는, 무모한

precaution [prikəʃən] n. 조심, 경계

result in ~로 이어지다

catastrophe [kətæstrəfi] n. 참사, 재앙(=disaster)

equilibrium [iːkwəlibriəm] n. 평형상태, 균형

[해석]

우리의 생존과 건강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지나친 비관주의는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는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의 훌륭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지나친 낙관주의는 결국 재앙이 될 계산되지 않은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자신감은 혼란 건강 및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같은 태만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고 무엇이 잘못될지 모르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회피 행동, 소극성, 우울한 기분의 악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최적의 균형은 현실에 확고히 바탕을 둔 신중한 낙관주의이다.

과 정	9급
회 차	제16회

2023 더건의 반.반.한 온라인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출 제	한덕현 교수
	페이지	6p

20. [정답] ②

[해설]

자리 찾기 문제의 경우는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가 될 만한 단서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즉 이 문제에서는 But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 주어진 문장에서 But이 있으므로 “그러나 남편을 고르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의 앞에는 남편을 고르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말이 나와야 하고 이 문장 뒤에는 남편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 고로 ②번이 정답이 된다. 즉 ②번 앞에는 학교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고 ②번 뒤에는 약혼, 남자 얘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정답은 당연히 ②번이 된다.

[단어숙어정리]

remote [rimóut] a. 먼, 외딴

mining [máiniŋ] n. 광업, 채광

region [rí:dʒ-ən] n. 지방, 지역

graduate school 대학원

tuition [tju:íʃ-ən] n. 수업, 수업료

resist [rizíst] v. 저항하다

be engaged to ~와 약혼하다

press+목적어+to V ~에게 강요하다

ostracism [ástrəsizəm / ós-] n. 배척, 도편추방 cf. suffer

social ostracism 사회에서 매장되다

accuse A of B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다[고소하다]

defile [difáil] vt. 더럽히다, 신성을 모독하다

on suspicion of ~혐의로

contend [kənténd] v. 다투다, 주장하다

[해석]

Nirupama Pathak가 이 외딴 광산 마을을 떠나 뉴델리에 있는 대학원으로 갈 때 그녀는 새로운 인도를 찾아 구 인도를 떠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부모가 수업료를 대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고 싶어 할 때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녀의 가족은 힌두의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이었고 22살의 Pathak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남자와 몰래 약혼했다고 알렸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마음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에서의 배척을 경고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비난했다. Pathak이 4월말에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그녀의 엄마 Sudha Pathak를 체포했는데 가족은 자살이라고 주장했다.